

도, 산지 이용 '호두' 산업 육성한다

산림분과 토론회... 비용 지원·신제품 식재·기술교육·복합경영·유통시스템 개선 등 논의

전북도가 산지를 이용한 '호두'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전북도 산림분과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지역 산림분야 전문가와 현지 임산물 생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갖고 산지자원을 이용한 산림소득 창출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산림분과 토론회는 임산물 생산농가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을 듣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경쟁력 있는 산림작물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지난 16일에 열린 토론회에서 호두산업 활성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도내에서는 2015년말 기준으로 약 117톤의 호두가 생산돼 연 2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데, 이는 전국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규모로 대부분 무주군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 및 수매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두는 식재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년이 걸리며,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등 새로운 병충해가 발생하고, 인력 수확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일부 검증되지 않은 목욕이 식재 때 품질의 균일성이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두를 품종과 크기에 따라 선별하지 않고 청피 형태로 납품함에 따라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불량품이

혼입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매업자가 특정 농가만을 찾아 구매하게 돼 판매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호두의 생산 및 수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방제장비 구입, 수확그물망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선발 육종한 신품종을 식재토록 권장.홍보하고 산주를 대상으로 우량묘목을 식재하도록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호두 수확기간의 장기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호두나무 밑에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사리나 산약초 등을 식재해 복합경영을 추진하고 호두 수매 시 선별기준을 마련, 수매등급제

를 도입해 유통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호두의 탈피. 건조. 선별 과정을 기계화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진장권역은 물론 충북 영동, 경북 김천 등에서 생산되는 호두를 수매해 유통하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최재용 환경복지국장은 "산림산업 육성을 위해 '호두' 품목도 제값을 받고 제대로 팔릴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부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소득 임산품목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해 산지자원을 이용한 산림소득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무주군, 일자리 분야 시·군 합동평가 1위·종합 2위

무주군이 일자리 분야 시·군 합동평가에서 군 단위 1위, 종합 2위를 차지했다.

군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앙·지방간 일자리정보 연계·통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워크 넷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지역 워크 넷 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무주군 취업자 수는 시스템 활용 전 최근 3년간(2013~2015) 40명에서 지난해 134명으로 235%가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기안전 대학생기자단 발대식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혁신도시 본사 소홀에서 지난 17일 '제6기 전기안전 대학생기자단 발대식' 행사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어업관련 보험료 55억원 4930명에 지원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어선원 보험·어선 보험·어업인안전공제 보험에

전북도가 어업인 경제적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55억원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실현과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선원 보험 등 어업 관련 보험료의 어업인 부담금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하는 보험료는 어선원 보험, 어선 보험 및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 등 3종으로 총 54억9500만원을 투자해 4,93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어선원 보험은 4톤이상 어선은 의무 가입, 4톤미만 어선은 임의가입 대상으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해 부상.질병.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어선 보험은 등록된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좌초.충돌.화재.손상 등이 났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

또한, 어업인안전공제 보험은 어촌 복지형 상품으로 맨손.나잠어업 신고자와 4톤미만 어선의 선원 등이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

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지난해 어선원 보험료 1,580명, 어선 보험료 700척, 어업인안전공제 보험료 2,650명을 지원한 바 있다.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의 보호와 어선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 내년부터 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3톤이상의 어선으로 확대되는 만큼, 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김형렬씨



설계국장을 맡아 건설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신임 차장은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살려 국책사업으로서 새

만금 사업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김형렬 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사진)이 17일자로 신임 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신임 차장은 경북 포항 출생으로 중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파를 거쳐 동 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일본 동경대학교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6년 기술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대변인, 국토정책관, 수자원정책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으며, 2016년 6월부터는 국토교통부 건

도, '1부서 1정책 아이디어' 3개 우수과제 선정

최우수 과제 '응급처치 동영상 안내 시스템 구축'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1부서 1정책 아이디어' 발굴 과제를 대상으로 도홈페이지를 통한 도민평가와 PT 발표평가를 통해 3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1부서 1정책 아이디어'는 연초 과장급의 대규모 인사에 따라 부서장이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마인드로 특색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발표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인 실현가능

성, 창의성, 도정발전 기여도, 노력도 등을 고려해 실시했다.

최우수 과제는 119 종합상황실의 '응급처치 동영상 안내 시스템 구축'이 선정됐으며, 우수과제는 해양수산과의 '곰소 천일염 6차 산업화 사업'과 농업정책과의 '새만금 Sun-Flower 시험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우수과제로 선정된 3개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금 지급과 함께 직무성과 부서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도,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보수교육 실시

전북도가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여행단 34만명 유치를 위해 17일 전북 관광마케팅지원센터에서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4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전담인원을 답사했다.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보수교육은 전북을 찾는 수학여행단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여행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지도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학여행 코스 개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누구나 365일 가고 싶은 관광도시, 전북', '국제 청년관광도시, 전북', '한국체험 1번지, 전북'을 슬로건으로 수학여행 모델코스 설명, 지도시간 현장 출장 시 협조체계 구축 요령 등 지도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안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 소개로 진행됐다.

전북만이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제도는 타 지역에서 도내로 수학여행시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전북에 대한 좋은 인상과 추억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전담지

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 지도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수학여행 30일전에 수학여행콜센터에 신청하면 차량 1대당 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에 진입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일정을 동행해 선생님과 공동으로 학생을 인솔, 프로그램 운영 보조 역할로 선생님의 업무경감과 학생들의 학습활동 만족을 위해 활동한다.

이밖에도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야간시간을 이용한 공연 및 레크레이션,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열차(KTX)와 연계해 열차를 타고 온 수학여행단에게는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등 수학여행단 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300여개의 수학여행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과서와 함께하는 전북 테마형 수학여행코스, 농어촌체험학습 코스, 열차연계 코스, 각국 수학여행단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코스 등을 다양하게 개발해 전북도가 수학여행 1번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